

'운동권 청산론' vs '정권 심판론' 대격돌

與 "정권교체 완성 국정동력 확보"...野 "2연패 끄고 정권 견제" 준연동형 유지 비례 위성정당 대결...빅텐트 무산 제3지대 주목

4·10 총선은 6·1 지방선거 이후 2년 만의 전국 단위 선거로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 성격과 21대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에 대한 평가가 공존하는 선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양당의 공천 과정, 의대 증원 이슈의 전개, 예기치 않은 막말 논란 등이 막판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3지대 신당이 거대 양당에 거부감을 느낀 중도·부동층을 얼마만큼 결집해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총선 승리를 통해 번번이 정부의 발목을 잡은 '여소야대' 의회 지형을 바꾸겠다고 버리고 있다. 그레 야만 각종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진정한 정권교체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직전 대선과 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 2연패 고리를 끊어내고 입법부 수성 의지를 보인다. 정권 독주를 견제하는 동시에 차기 대선을 향한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양당이 총선 목표 의식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원내 1당'이 최우선 목표로 꼽힌다. 나아가 입법 주도권을 쥐고 반(반)의 의석을 누가 확보할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이번 총선은 지난 대선의 '윤석열 대 이재명' 구도가 재현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서로에 대한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특권 세력을 청산해야 할 기회라고 주장해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일부 86(1980년대 학번·1960년대생) 인사 공천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여전

히 '운동권 청산론'이 시대정신으로 유효하다고 강조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가 무엇보다 정권 심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물가 등 민생경제 지표가 악화한 점을 근거로 현 정권의 국정 운영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도부 회의와 주요 격전지 방문 등을 통해 "무도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연일 외치고 있다. "최초 리오 혼을 내 정신이 들게 해야 국민 무서운 줄 안다"는 '최초리론'도 주요 키워드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여야의 공천 파열음은 최대 변수 중 하나다. 공천 잡음이 당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공천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된

다. 그러나 물갈이가 미진하면서 '중진 불패'라는 지적이 나왔고, 최근연 이체익·유경준 의원 등 '뒷발' 탈락자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도 표출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비명횡사·친명횡재' 비판 속에 김영석 의원 등 비주류 6명이 탈락하며 거친 파열음이 터져 나왔다. 다만, 임종석 전 실장 등 86그룹 일부가 탈락하며 어느 정도 세대교체를 이뤘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도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준연동형 제도가 유지되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더불어민주연합'을 창당했다.

병립형 회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창당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국민의미래가 국민의힘과 '한 식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더불어민주연합은 '정권 심판'을 기치로 한 야권 연대를 콘셉트로 한다.

향후 비례대표 공천 과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빅텐트' 구성이 무산된 제3지대 신당들은 20석 이상 정당에 주어지는 '원내 교섭단체'를 목표로 각개전투 중이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용인 등에 후보를 내고 비례대표까지 최소 20석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새로운미래 역시 이낙연 공동대표의 고향인 호남을 거점으로 지역구와 비례 대표를 합쳐 30석 가량을 기대하고 있다.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 등 진보 성향 군소정당들은 민주당과의 직·간접적 연대를 모색하며 '따로 또 같이'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선명성'을 부각하며 비례대표 10석 안팎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총선 결과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 제3지대 신당과 조국혁신당 등 군소정당들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이 중도층이나 무당층 표심을 확보할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총선 한달 앞둔 국회 오는 4월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제3지대 신당이 거대 양당에 거부감을 느낀 중도·부동층을 얼마만큼 결집해낼지 주목된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연합뉴스

새로운미래, 세 불리기 박차

'민주연대' 플랫폼 통한 추가 합류 기대 이낙연 광주 출마 통해 호남 기반 구축

이낙연 공동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가 4·10 총선을 한 달 앞두고 현역 의원 영입 등을 통한 세 불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일 '새미래'에 따르면 현역 의원 수에 따라 부여하는 총선 정당 기호의 앞번호를 받기 위해 현역 의원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달 25일 기준 현역 의원 수에 따라 선거 보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현역 확보는 더욱 중요해졌다.

새미래는 현역 영입 여지가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이 여당보다 거센 편이고, 탈락한 의원들도 있어세다. 이미 5선의 설훈, 4선의 홍영표 의원이 민주당에서 탈락해 새미래에 입당하기로 했다.

새미래는 민주당 탈당파와 함께 결성한 '민주연대'라는 플랫폼을 통해 추가 합류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민주연대 관계자는 "꽤 많은 민주당 의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개문발차를 하면 속속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미래는 호남 기반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저조하지만 이낙연 대표가 광주에서 출마하기로 한 만큼 호남에서 '진짜 민주당'을 내세우며 대안 정당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새미래 덩치 키우기가 희망 사항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조국혁신당이 지역민의 관심을 더 많이 끌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조국혁신당은 한국갤럽이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진행한 전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국민의힘 37%, 민주당 31%에 이은 6%로 3위를 차지했다.

이는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진보당 각각 1% 보다 높은 것이다.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 ±3.1p)

특히 호남에서 조국혁신당 정당 지지도는 11%였다. 이는 민주당 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자세한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진수기자

소수 신당들 '기호 싸움' 치열

현역의원 수 같으면 추첨으로 투표용지 기호 결정

4·10 총선을 앞두고 원내 소수 신당들의 투표용지 '기호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의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22일) 기준 현역 의원이 많은 정당 순으로 결정된다.

같은 의석을 가진 정당이 둘 이상이면 최근에 실시된 비례대표 선거 득표 수 순으로 기호를 정한다. 그러나 신생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가 없기에 당 대표나 대리인의 추천으로 결정한다.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의석 수는 현재 4석으로 동일하다. 개혁신당 현역은 양향자·이원욱·조응천·양정숙 의원이다.

새로운미래는 김종민·박영순 의원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설훈·

홍영표 의원이 합류하면서 현역이 4명으로 늘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창당한 조국혁신당 등도 마찬가지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출신 황은하 의원이, 자유동일당은 무소속 황보승희 의원이 각각 합류해 1석씩을 확보한 원내 정당이 됐다.

이들 정당도 추가로 현역 의원이 입당하지 않으면 추첨에서 기호 경쟁을 벌인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위성정당을 따로 창당해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을 예정이다.

이 때문에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에는 기호 3번 정당부터 표기될 것으로 보인다.

원의 정당들은 가나다 순으로 기호가 결정된다. /김진수기자

국민의힘, 광주·전남 공천 완료

광주8곳·전남10곳...16년만에 처음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담양·함평·영광·장성에 김유성 전 전남 대한탐정연합회장을 전락 공천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광주·전남 전 지역구에 공천을 완

료했다. 이번 총선에서 15% 이상의 득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광주의 경우 ▲동남갑 강현구 전 광주시 건축사업회 회장 ▲동남을 박은식 당 비상대책위원(의사) ▲서구갑 하현식 조선대 외래교수 ▲서구를 김윤 전 대우자

동차 세계경영기획담당 ▲북구갑 김정명 광주시당 부위원장 ▲북을 양종아 전 광주MBC 아나운서 ▲광산갑 김정현 전 광주시당 위원장 ▲광산을 안태욱 전 광주교통방송사 사장 등 8곳의 공천을 완료했다.

전남은 담양·함평·영광·장성 외에 ▲목포 윤선웅 목포 새마을문고 이사 ▲여수갑 박정숙 전남도당 산림환경분과위원장 ▲여수를 김희택 전남도당

대외협력위원장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순천·광양·곡성·구례을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 ▲나주·화순 김종은 나주·화순 당원협의회 위원장 ▲고흥·보성·장흥·강진 김형주 전 열린민주당 광주시당 회계책임자 ▲해남·완도·진도 곽봉근 중앙당 국제자문위 고문 ▲영암·무안·신안 황두남 전 신안군의회 등 10곳의 공천을 마무리했다. /김진수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우라칸 SH-1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우라칸 SH-2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블리스 GOLD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15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마스터즈 CH-2000

SPECIFICATION

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
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
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
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숄:신주(황동)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

